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90. 바벨론에서 나오라

2014. 09. 21.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17장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았으나 풀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성령님의 인도를 감사합니다. 이제 1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애청자들께서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문인정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213-905-3641입니다.

[계18:1~5]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1.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17장을 다 살펴봤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애청자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18장 내용을 살피기로 하지요.

답: 예, 크게 어렵지 않게 느꼈다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16~19장은 14장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계시라고 한 것 말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7장은 16장의 여섯째 재앙 아마겟돈을 주장하는 짐승의 실체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것들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왔는지 알게 하면서 그것들이 어린양 예수님과 그분에게 속한 자들을 대적하려고 결속하지만 결국은 패배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이 정치적 상태를 다룬 것에 반하여 18장은 이 바벨론으로 상징된 조직의 경제적 상태를 중심으로 내부적 상태와 경제를 중심으로 연관된 관계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적 권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18:1,2절은 14:8절을 다시 상기시키는 기별입니다. 14:8절에서는 둘째 천사가 첫째의 뒤를 따르며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와 셋째는 큰 음성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둘째는 그냥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18:1,2절에서는 힘센 음성으로 외친다고 했습니다. 14장의 둘째 천사와는 전하는 상태가 다릅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아주 능력으로 크게 소리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2. 목사님, 그런데 18장도 일곱 재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하셨는데, 은혜의 기간이 끝난 후의 상황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외침은 그 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답: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장도 계시예 보여주신 짐승이 요한이 계시를 보는 그때를 기점으로 심판에 이르게 된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것처럼 18장도 바벨론의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한 번 더 위엄과 힘센 음성으로 경고의 기별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곧 무너질 것이니까 속히 나오라는 기별을 심판이 이르기 전에 외치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가르쳐주면서 천사들이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제도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 번 더 크게 외치는 일이 있을 것이며 그때는 그 빛으로 온 세상이 밝아질 것인데 그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제 바벨론에서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계시록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기별을 먼저 보여주신 후에 환난과 멸망에 대한 기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번 말했지요.

3. 그러면 지금까지 한 대로 구구절절이 말씀을 설명하실 것인지요?

답: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되겠지요. 먼저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했습니다. 이 일 후는 17장 계시를 본 후라는 뜻이고 다른 천사는 17장의 사건을 보여준 천사가 아니라는 뜻이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이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천사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 천사가 외치는 내용이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과 같은 것을 미루어 둘째 천사로 표상된 것이 이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임을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사도 땅을 환하게 하는 기별을 전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화가 됩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는데 역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전한다고 한 14장의 천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상징했기 때문에 여기 천사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지요. 그리고 이 천사는 14장의 세 천사의 외침에 힘을 주고 협력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이 천사가 14장의 천사들에게 힘을 주고 협력하는 일을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은 자손이라고 한 그 무리 외에 또 사명을 받은 다른 무리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고 한다면 다른 말이 필요가 없겠지만 14장과 같이 사람을 상징한다면 14장의 세 천사로 표상된 무리들과는 다른 무리들이라는 말입니까요?

답: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표현을 풀어나가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지금도 성경의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한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성경의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스스로 계신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경배하라는 기별이지요.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

시는 창조주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생명자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기별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 자들이라는 것도 확인했지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외에 또 다른 무리가 이 기별을 전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18장 1절의 기별이 전파될 그 무렵에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큰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의 경험으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큰 권세로 그 사실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그들이 바벨론에 속아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죄상을 드러내는데 유리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2절)라고 외칠 때에 힘이 있고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능력으로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들처럼 속히 나오라고 외치는데 거침이 없을 것이지요. 물론 그들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만, 사람을 사자(使者)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이 갖춘 자질에 큰 권세를 더하여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목사님 하시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말 말씀 듣고 보니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어떤 해석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럴까요?

답: 저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천사라고 했을 때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던 사자(使者)들이 아니라면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합당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18장의 기별을 전파할 그 무렵에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바벨론의 정체를 깨닫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직도 바벨론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에게 힘 있게 외칠 수 있지요. 그들이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전하기 때문에 온 땅이 환하게 되는 능력이 될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경험이 큰 권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경험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증거로 바벨론의 암흑이 폭로될 때 온 땅이 환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요. 또 이것은 예언의 핵심 문제는 아닙니다. 누군가 둘째 천사의 기별과 같은 기별에 긴박성이 더해지고 바벨론의 실상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증거할 무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환하여지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깐요.(요1:4) 그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나온 깨달은 자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좋은 설명이 있으면 가르쳐주십시오.

6. 다른 설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설명을 들은 일이 없어서 여쭙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폭로한 바벨론의 실상, 곧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이런 선포는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크게 외쳤지요. 그것은 둘째 천사의 외침과 같은데, 둘째 천사

는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을 무너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기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만국을 함께 무너뜨렸는데 그 이유가 만국이 바벨론과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은 겐보기에는 도덕적이고 아주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부를 주장하는 것은 루시퍼의 세력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더러운 영은 16:13,14에 나오지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만국의 왕들을 모으는 일을 한 장본인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은 영혼불멸설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상에 강신술을 용납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러운 영은 강신술을 받아 이적을 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16장에 더러운 영들이 이적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바벨론이 이런 존재들의 아지트가 되었다는 것을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표현했지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마귀의 활동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천국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새가 와서 그 복음의 씨를 먹어버린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면서 새를 사단, 마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요.

[막4:15]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눅8:12]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므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상태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성령께서 요한에게 영감과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지만 구약의 표현을 빌려서 묘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나오는 구절들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 번 볼까요?

[사34:11~15]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12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13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영경귀와 새롭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14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숲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15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에돔이 망할 때에 있을 상태를 말하면서 이렇게 짐승과 새들이 소굴이 될 것이라고 했지요.

[습2:13~15]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앗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 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14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떼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15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의 엮드릴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이것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표현인데 15절은 계18장 7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외면할 때 그 상태가 이렇게 처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군림하면서 내용이 이렇게 귀신적인 상태를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면 이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어요?

7.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바벨론의 상태가 너무 루시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장의 구조는 일곱 개의 노래로 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중에 학자들이 문체 구조를 분석하고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의 노래와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들의 노래로 구분이 되는데 내용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그것은 18:1~19:10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3절은 바벨론에서 나온 무리들의 첫째 노래인 셈이지요. 그 노래가 바벨론의 상태를 폭로하는 가사인데 3중 폭로이지요. 첫째가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 둘째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 셋째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동일한 종류들입니다. 함께 바벨론이 진리를 배반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3절에 다시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또 3중으로 드러냅니다.

[계18: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3중으로 드러내는 내용의 첫째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에 먹인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미 14:8, 17:2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요. 로마서 1:18에 있는 설명입니다. 둘째는 땅의 왕들을 자기와 행음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정치권력을 잡고 정치권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 음행이라고 했지요. 셋째는 땅의 장사꾼들도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을 통하여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처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 후에 바벨론의 침몰을 노래하는 가사의 중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부자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장사꾼이라는 사실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이유는 다음에 죽 나열됩니다. 바벨론이 세상의 경제계를 석권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부가 이 교권국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바벨론과 거래한 장사꾼들도 치부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다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8. 실제적인 면이란 세상의 경제적 사실에 실제로 개입된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까. 다만 영적인 면에 경제적인 내용은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답: 예, 이제 말씀한대로 실제로 바벨론은 세계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합니다. 세상에 떠도는 루머들은 이런 사실을 신비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에 프리메이슨이 개입되어 있다느니

제스윗이 주관한다느니 등등 이상한 말들이 떠돌고 또 그런 책들도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확증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관계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면이라고 하면 바벨론이 신도와 권력을 많이 보유한 사실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교권국가는 온 세계를 소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 치부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교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치부한 모습이지요.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적 태도를 고행으로 대신하고 일반 생활에서는 세상과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방종을 별로 탓하지 않습니다. 남녀 성직자들에게는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지 모르지만 일반 신도들에게는 그냥 살도록 두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고 폭로하지요. 그들은 돈으로 속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몰라도 돈 있는 사람들은 죄를 돈으로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사치의 세력으로 그들과 거래하는 세상은 치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좀 무리한 생각인 것 같나요? 아무튼 이런 것이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9. 글썬요? 무리한 생각인지 적당한 생각인지 저로서는 분간하기 어렵네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교리와 신조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요인으로서의 모두가 효력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째 노래 가사라는 말이지요.(예.) 다음 노래는 4절부터 시작됩니까?

답: 그렇습니다. 노래라고 한 것은 학자들이 하는 표현이고요, 아무튼 내용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4,5절은 또 다른 음성이 외치는 내용입니다. 또 6-8절은 4,5절을 외친 음성이 말하는 것인지 다른 음성이 말하는 것인지 문장 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그 구절을 읽어봅시다.

[계18:4~8]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갹절을 갹아 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갹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갹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첫째 가사가 끝나고 둘째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은혜 기간이 끝나기 직전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외치는 기별입니다. 조금 있으면 은혜 기간이 끝나고 바벨론은 돌이킬 수 없도록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별을 외칠 때까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바벨론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 되어서 70년을 지낸 후에 고레스의 해방 선언을 들었을 때 속히 거기서 떠나야 했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과 거

의 같은 말로 외친 것입니다.

[렘50:8]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떼에 앞서 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렘51:6]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와 그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렘51:45] 나의 백성이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와 그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이 구절들과 4,5절은 거의 같지요. 이사야도 비슷한 경고를 했습니다.

[사48:2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 구절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입니다. 바울은 바벨론이라고 특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계시록 18:4,5과 같은 의미로 보이는 권고를 했습니다.

[고후6:17]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모든 권고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세력에서 속히 떠나 하나님께로 오라는 기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는 셈이지요. 계시록을 연구하는 이유는 바벨론의 정체를 잘 알아서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흘러오면서 교회는 너무 세속화되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교리와 신조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합리와 정당화하기 위하여 전통과 신학을 동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논리가 귀에 잘 들어오지요. 귀를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딤후4:3,4]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우리는 이 권고를 잘 이해하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시는 음성입니다. 첫째로 거기 있으면 그들의 죄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거기 있으면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나와야 합니다.

10. 목사님,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부르시는 간절한 호소를 듣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이 되었군요.

기도: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시여, 바벨론의 정체를 자세히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진리를 따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하도록 성령의 지도를 잘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